

디지털농업 현장 적용 기술보급 '젠걸음'

농진청, 올 한해동안 실증연구 교육장 구축·노지 디지털농업 확산 등 성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디지털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 및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농업은 생산·유통·소비 등 농업관련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 저장·관리 결합 분석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정밀농업이나 스마트농업보다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로 농업의 생산성·편리성 향상 및 환경성 개선을 목표로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유통·소비, 정책자원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보급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 디지털농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 조성 과 영농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

범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된 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농촌진흥청의 디지털 농업 부문 기술 보급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디지털농업 실증연구 교육장(테스트베드) 구축 ▲민관협력의 시범사업을 통한 노지 디지털농업 확산 ▲품목별 최적 환경설정 생산모델 보급 ▲우수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정예인력 양성 및 현장지원 컨설팅(전문지도) 등이다.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해 실증연구 교육장 96개소(누계)를 조성했으며,

해당 교육장에서 교육·컨설팅(전문지도)을 받고 디지털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약 141%, 재배면적은 1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딸기 파프리카 등 디지털농업 생산 모델을 4개소에 보급했고 각 모델이 적용된 농가에서는 평균 노동력 8% 절감, 상품성 50.4%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농업 기술의 재배 이룬 및 현장 실무, 강의 역량을 갖춘 전문지도사 50명을 양성했고, 권역별 디지털 농업 현장지원 컨설팅 20개소 지원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와 데이터 수집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노지 디지털농업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도 및 시·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최적화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농업을 적용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을 위한 환경제어 모바일 서비스 지원 확대, 최신 디지털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민관공동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디지털 영농 기술 보급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농업인들이 디지털농업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업무공간 혁신 방안부장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 2017년부터 협업과 소통을 촉진하는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총 26개의 기관이 응모했으며, 공단은 개방형 소통·협력 공간 구축, 공간 활용 및 효율화, 복지 공간 확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업무 공간 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문화 등 사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간혁신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사람 간의 조화'를 위해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을 조성하고, 직급 및 업무 구분 없이 좌석을 선택하는 자율 좌석제를 시범 운영하여 수평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협업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OA 공간을 독립적으로 마련해 복합기, 분쇄기 등 사무기기와 수납장 탕비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업무집중도 향상 및 공간 효율화를 이뤘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한 눈물로 치유하는 마음치유실, 직원의 몸과 마음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건강 관리센터의 확대 조성, 독립형 쉼 라운지 등 내 인의 조화를 위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 조성에도 힘썼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경쟁력과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공간혁신을 지속 추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발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박병홍 농촌진흥청장이 13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과학기술 혁신포럼을 주제로 열린 제2회 농업기술혁신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오늘 농사는 어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 기술을 활용해 농업인들에게 영농 및 농촌생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NH오늘농사 앱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NH오늘농사 앱은 공공 데이터 등을 활용한 영농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촌현장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천여명으로 구성된 농업인 체합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농업인들이 '오늘 농사 어때?'라며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농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업인은 앱을 통해 ▲(기본정보) 날씨, 농축산물 가격, 병해충 발생정보 등 영농뉴스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모델 추천·견적 교육·컨설팅 및 금융·지원 정책 안내 ▲(영농정보) 최신 영농기술과 리포트, 병충해 등 ▲(교육 콘텐츠) 조합원교육, 영농교육, 지식채움, 스마트팜 등 ▲(농촌생활) 금융, 생활법률, 문화생활 NH여행, NH장터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현장과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NH오늘농사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농협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 혁신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선정

해수부 공모에 전북도·바이오진흥원 등 2곳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2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공모에 전라북도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역 내 우수한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나 기업을 발굴하고 교육·컨설팅·신제품개발·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해양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 2022년 국·도비 약 15억원이 투입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유치활동 및 예비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12월 내 도내 귀어귀촌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해양수산관련 대학 및 기업 등과 함께 사업확장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원할 수 있는 All-line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 도내 해양수산 관련기업이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수산업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 수출 거점을 확보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제인증전시회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행사와 연계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청년일자리 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본 사업 수행을 통해 도내 신규 창업기업 8개사 발굴, 참여기업 매출 및 수출액 80이상 증대, 신규 고용종류 100명 이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해수면과 더불어 전국단위 경쟁력을 보유한 내수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전라북도 해양수산 산업 전반의 성과 창출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김동수 원장은 "2019년부터 도내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준비해 온 결실을 얻었다"면서 "진흥원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수산창업 활성화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서재희 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예비 창업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마련하고 향후 새 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와 더불어 내수면을 활용한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환 황해권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을 구축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2022년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모를 통해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13일 경북 안동에서 서안동농협의 배추·무 출하조절센터를 방문해 배추와 무의 비축·가공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중기청, 중장년 기술창업 페스티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진북중기청)은 13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2021년 전북 중장년 기술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중장년 센터를 운영하는 3개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우수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장년 기술창업 사업은 기술과 경



13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1 전북 중장년 기술창업 페스티벌.

험을 보유한 중장년에게 창업관련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사무공간 제공 등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향후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윤상 기자

이번 행사에서 센터 입주기업 15개사가 플라마켓을 운영해 제품을 전시·판매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우수한 제품을 판매, 홍보하였다. 또한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창업의 기본개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기관별 지원사업을 안내해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각 센터에 입주한 우수 기업들의 사례 발표를 통하여 성공 창업 노하우와 함께 사업 성과를 공유했고, 참석하신 기업간 경영노하우, 마케팅전략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중장년 페스티벌을 계기로 중장년 창업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T 김춘진 사장, 김치원료 수급조절 현장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김춘진 사장은 13일 경북 안동에서 서안동농협(조합장 박영동)의 배추·무 출하조절센터를 방문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점검하고 배추와 무의 비축·가공현황을 점검한 뒤, 배추·무의 수급조절과 김치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사장은 "서안동농협은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출하조절을 위해 김치원료의 공급까지 역할 등 수급조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생산능력의 소득제고와 고품질 원료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로 수급·가격안정에 적

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안동농협 풍산김치의 가공공장을 찾아 100% 국내산 최고급 원재료와 상황버섯 추출물을 활용한 김치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고, 김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풍산김치는 제1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풍산김치와 같은 차별화된 프리미엄 김치를 육성하여 한국 김치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99'로 /김윤상 기자·김계=곽노태 기자